

조여드는 가계부채... 높아지는 대출 문턱

내달부터 전 금융권 주택대출 분할상환 의무·소득심사 강화 취약계층 대출 간간해져... 대부업체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

다음 달부터 사실상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의 돈 구하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가계빚 6년도 안 돼 400조 증가...대출 조이기 본격화=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몰겠다는 방침이다.

된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1천 50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한계가 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돈을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도록 한 것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포인트(p) 오르면 잠재적 위험가구가 32만4000가구에서 36만5000가구로 4만 1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보험에 이어 상호금융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카드사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되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 대출을 받으면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이자만 내다가 일정 기간 이후 원금을 갚는 거저식보다 상환 부담도 커진다.

소득이 많지 않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고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구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를 찾는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은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으로 대출자들이 몰리고 있다.

상호금융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돼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축소는 되겠지만, 저축은행 등으로 풍선효과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위험한 것은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은행, 상호금융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대출의 연체가 커져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조 연구위원은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마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은 저소득·저신용층"이라며 "취약계층의 리스크가 올라가면 이들에게 주로 대출해 주는 곳의 부실화 위험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r.연합뉴스

반려동물 시장 1조8천억원 '호황'

사육 1000만명 시대...농식품부 동물복지팀 신설

한국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부도 이달 중 전담 조직을 꾸려 보다 체계적 관리와 산업 육성에 나선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1~2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5년 21.8%로, 3년 전인 2012년(17.9%)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457만 가구,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다섯 집 가운데 한 집,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원에서 불과 3년만인 2015년 두 배인 1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2020년에는 현재의 세 배가 넘는 무려 5조8000억원(농림경제연

구소 추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정책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농식품부는 오는 28일께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아래 반려동물 관련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팀(가칭)'을 신설한다. 이전까지 2명이었던 동물 복지 담당 인원 수도 5명으로 늘렸다.

다양한 반려동물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매출이 2015년보다 22.5%나 늘었다. 성장률이 전체 매출 성장률(1.8%)의 거의 20배에 이를 만큼 '호황'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반려동물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11번가'에서 작년 관련 매출은 2015년보다 무려 40%나 늘었다. 성장률이 2015년 20%에서 1년새 다시 두 배로 뛴 것이다. 올해도 이달 16일까지 애견용품, 고양이 용품은 1년 전보다 각각 23%, 30% 증가했다. /연합뉴스

설 자리 잃어가는 10만원권 수표

지난해 562억원 사용 역대 최저...5만원권·카드 결제에 밀려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전자결제 수단과 5만원권 지폐의 사용이 늘면서 1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가 외면당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각종 대금을 결제한 금액은 하루 평균 56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의 일평균 이용금액 730억원보다 16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10만원권 수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1991년부터 점차 늘어 2007년 4000억원을 넘었다.

수표 사용이 줄어든 것은 신용카드와 모바일카드 등 간편한 결제수단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과 수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1조60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 줄었다.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2014년에도 전년 대비 6.0% 줄었고 2015년엔 6.5% 감소하는 등 매년 줄고 있다.

고액권인 5만원짜리 지폐가 2009년부터 발행된 점도 수표의 사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전시장 입점 지역 中 企 제품 모집

중진공광주본부 내달 3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장범)는 국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유망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판매장·홍보전시관(TIM STARTICE) 입점제품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진공은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3개국에서 해외전시판매장 5개소와 홍보전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67개 중소기업의 3221개 제품이 입점해 있다.

이번 모집에는 중국 선양 해외전시판매장, 청도 홍보전시관과 함께 오는 5월에 개소할 충청 신규전시판매장에 입점할 제품을 모집 중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

달 3일까지 해외유망장 진출 지원사업 홈페이지(b2c.gobizkorea.com)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369-3055.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4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10	13	36	37	40	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111,814,813		1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7,382,716		44		
3	5개 숫자 일치	1,492,870		1,986		
4	4개 숫자 일치	50,000		98,348		
5	3개 숫자 일치	5,000		1,658,556		

67돌 보해양조 "100년 기업 향해 전진"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8일 전남 장성 생산본부에서 임지선 대표와 채원영 사장·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보해양조(주)의 창립기념식은 장기 근속 임직원과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비롯해 보해양조의 지난 67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임직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보해가 지난 67년 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다"며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100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특히 함께 해준 임직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주류업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보해 골드 등 새로운 제품 출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전남 전문건설업체 수주 실적 개선

지난해 2조1267억 전년비 8% 상승...채산성 향상엔 도움 안돼

건설경기 불황속에서도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이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1071개 업체

중 975개 업체가 신고한 2016년 공사실적 총액은 2조1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했다.

업체별로 삼지토건(775억원)이 1위, 한남유리(542억원)가 2위, 대원산업개발

(487억원)이 3위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2949개 업체 중 2731개 업체가 3조6303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6.4% 증가했다.

업체별로 도양기업(1478억원)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동아에스텍(791억원)이 2위, 대야산업(566억원)이 3위를 이

다.

하지만 도급별 수주 분포에서는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원고급공사의 비중이 전체 기성액 대비 광주가 14.8%인 3139억원, 전남이 23.9%인 8680억원에 불과해 기업 채산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공사 축소와 복지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공사 발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